

01 기획의도



- # 인천광역시를 연관시키는
- # 쉽게 기억할 수 있는
- # 위트있는

인천시의 10개 군·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지자체 홍보캐릭터 대부분이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다. 인천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인천의 특징을 인천 지자체 캐릭터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캐릭터를 제작해 인천을 더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였다. 인천에 어울리는 지자체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인천만의 다채로운 관광지를 알리고, 개발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앞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천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

02 기존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등대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인 팔미도 등대의 후손으로 인천의 길을 밝히는 든든한 지킴이다. 늘 뒷짐을 진 채 묵묵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치명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점박이물범 친구들 중 첫째는 '버미'다.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이제는 본토에 진출해 인천을 지키는, 호기심 많고 씩씩한 점박이물범이다. 둘째는 '애이니'다. 등대를 사랑하고 모자 수집과 수염 정리가 취미인,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점박이물범이다. 셋째는 '꼬미'다. 키는 가장 작지만 운동은 가장 잘하는 장난꾸러기 꼬마다.

03 캐릭터 기획

▮ 아이디어 발상



사이다송 속 인천앞바다

1960년대 코미디언 서영춘이 불러 히트시킨 사이다송 속 인천앞바다가 등장한다. 인천하면 바다, 즉 인천 앞바다가 연상된다.



인천앞바다의 언어유희

인천앞바다를 그대로 발음해 언어유희 하면 인천아빠다가 된다. 그리하여 인천을 수호하는 인천아빠다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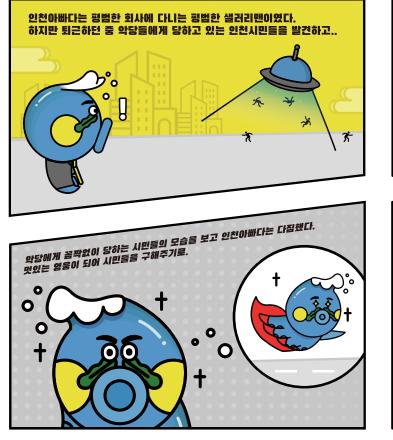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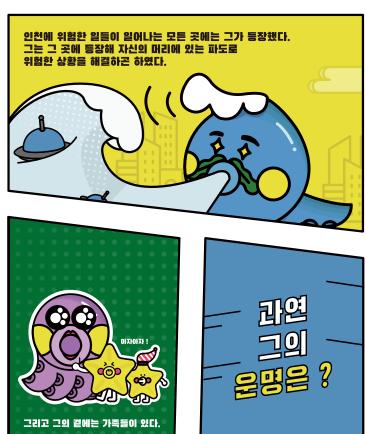
인천아빠다와 인천패밀리

인천아빠다와 인천아빠다를 응원하는 인천엄마다, 그리고 푸가와 싸리까지 인천패밀리가 탄생한다.

03 캐릭터 기획

▮ 시놉시스





04 캐릭터 컨셉

▮ 디자인 컨셉

▶ 인천아빠다 (메인캐릭터)

파란 문어 캐릭터이다. 문어라는 소재 자체가 머리가 없다보니 아빠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그래서 문어를 소재로 아빠와 결합시켜 문어아빠캐릭터를 탄생시키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인천아빠다의. 메인컬러는 굳건하고 강인하면서도 바다를 연상시키는 깊은 바다색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캐릭터를 봤을 때 인천의 앞바다가 연상될 수 있게 컨셉을 잡았다. 인천아빠다는 평소에는 능글맞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정의구현 할 때는 눈이 번떡 뜨이면서 용감해진다.

■ 인천엄마다

보라색 문어 캐릭터이다. 모래사장에 꽂혀 있는 알록달록한 파라솔을 들고 다니며 햇빛을 피한다. 인천엄마다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분홍색으로 설정하여 평소 열성적으로 인천아빠다를 따라다닌다. 평소 눈이 반짝반짝 빛나 문어아빠에게 애정표현을 한다.

■ 인천자식들

돌연변이 문어형 불가사리 캐릭터이다. 색은 사랑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드는 노란색으로 설정하여 햇병아리같은 발랄한 느낌을 준다. 아직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아 풋풋하다.

05 星고타입

■ 인천아빠다의 로고타입

'인천아빠다'는 딱 봤을 때 역동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로고타입을 활발한 느낌의 색상인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부가적인 요소인 수호대 느낌의 별 문양과 카리스마 있는 느낌인 선글라스를 추가하여 한껏 인천아빠다만의 강인함을 부각하였다.



06 스케치

▋ 프렌즈 스케치

캐릭터 기본컨셉과 디자인 컨셉을 반영하여 스케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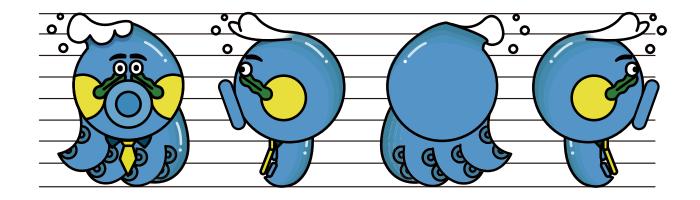
07 그래픽

인천은 우리가 지킨다 – ! 인천패밀리의 고군분투기



07 그래픽

▮ 메인캐릭터





인천 곳곳에 사건이 일어날 때 달려가는 동작



인천에 놀러온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동작



자식들을 놀아주는 동작

07 그래픽

■ 서브캐릭터





문어부인 캐릭터 반짝반짝한 눈으로 사건 스캔 당당함의 상징 보라문어









等7F

돌연변이형 불가사리 아이돌 지망생 싸리랑 노는것을 제일 좋아함





FFFFFF



아기불가사리 낮잠을 제일 좋아함 # E0D741

E24D61

FFFFFF

08 88

▋ 엠블럼









08 **

▮ 지자체 응용 상품 목업



08 88

▮ 지자체 응용 상품 목업



08 **

▮ 옥외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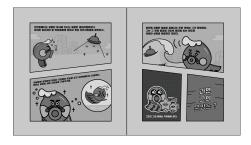
▶ 버스정류장 광고

▋ 전광판 광고

09 88

▮ 인천광역시 홍보 영상

















'2018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수상작 8개 발표... '158:1 불꽃 경쟁률'

특별상은 평범한 캐릭터들이 서로를 만나 의지하고 아픔을 극복하는 "코즈미코(COSMICO)", 서로 다른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한 몸에 공존하는 "안과 스콘(Yam and Scone)", 고장난 장난감을 통해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키니스마을의 장난감병원과 고장난 장 난감 친구들",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꿈나라 쥐 "Meet in a dream! 미뇽(Mignon)", 인천시 홍보와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 지자제 캐릭터 "인천아빠다" 등 5개 작품이 차지했다.

선정된 8개 작품에는 대상(문화채육부장관상·1팀) 1천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팀) 각 500만 원, 특별상(후원사상·5팀)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캐릭터산업 제험 연수와 한콘진이 주관하는 행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kakao), SPC그룹, 다날엔터테인먼트, 모닝글로리 등 국내 기업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경미 한콘진 대중문화본부장은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공모대전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높은 완성도와 참신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며, "원석 같은 캐릭터 참작자들을 발굴하고 다듬어 빛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어지지마, 인천아빠다가 있잖아

